

HANNAM DREAM

Vol.20

2015 Winter

2016 Spring

Cover Story 2016년 개교 60주년





since 1956

새로운 땅에 서다

“그곳은 남향이었고, 앞쪽으로는 과수원을
바라보고 나직이 경사를 이룬,
아름다운 푸른 논이 깔려 있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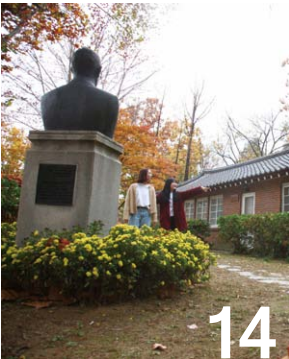
“낮은 둔덕 위에 작은 초가 토담집이 있었는데,
짙은 나무에 염소 한 마리가 매여 있었다.
염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다.”

“우리는 이곳에 대학의 중심이 될
첫 건물을 짓자고 결정하였다.
새로운 대학의 출발을 위해 좋은 징조였다.”

1954년 6월 대학의 초석을 놓을 지점을 결정하며 한남대학교
설립위원 구바울(Paul S. Crane)은 위와 같은 인상적인 글을 남겼다.

Contents

Vol.20
2015 Winter · 2016 Spring



Cover Story

06 Welcome 2016 & Dynamic 2015

Special Edition

14 한남대에는 보물섬이 있다

Hannam People

도전하는 사람들

18 히말라야 니레카봉을 세계 최초로 등정한
| 이상은 동문

20 세계 4대 극지마라톤대회 그랜드슬래머
| 최규영 동문

Hannam Power

22 기록연구사 배출의 산실, 기록관리학과
23 대전지역 사립대 최초 '건축학교육 인증' 획득, 건축학과
24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간호학과
25 학생들의 대외활동이 눈부신 일어일문학과

Hannam in World

26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업을 듣다
28 세계적인 생명공학회사 미국 프로메가를 가다

Hannam Admission

30 2016학년도 정시모집 안내

Hannam News

Donation Guide

Campus Map

Cover Zoom in



10월 28일 대학 종합운동장에서 600명의 재학생들이 함께 개교 60주년 엠블럼을 카드섹션으로 표현한 모습.

Welcome 2016

60년 전통을 넘어 100년을 꿈꾸다

한남대학교는 2016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한다.
1956년 개교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한남대학교는
명실공히 대전·충청지역 1등 사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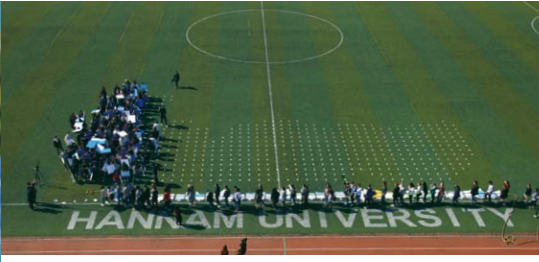
개교 60주년 엠블럼

한남대학교는 2015년 4월 정성균선교관에서 59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개교 60주년 엠블럼 공표 행사를 가졌다.

엠블럼은 한남대학교의 영문 명칭인 'hnu' 와 60주년을 의미하는 숫자 '60', 그리고 대학의 미래를 표현하는 '빛' 의 이미지가 어우러지는 형상을 상징화했다. 엠블럼을 디자인한 한남대 사회인 교수는 "영문 'h' 은 60의 형태가 같이 보이도록 했고, 마지막 'u' 는 대학을 의미하는 동시에 진리의 빛으로 표현된 백색의 선을 통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도약의지를 나타냈다" 고 설명했다. 60의 가운데 타원은 촛불 또는 등불을 형상화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한남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나타냈다. 또한 엠블럼의 무지개 색상은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적 교육을 의미하며 청색은 젊음과 이상, 그리고 신뢰와 진취성을 보여준다.

개교 60주년 학생 600명 카드섹션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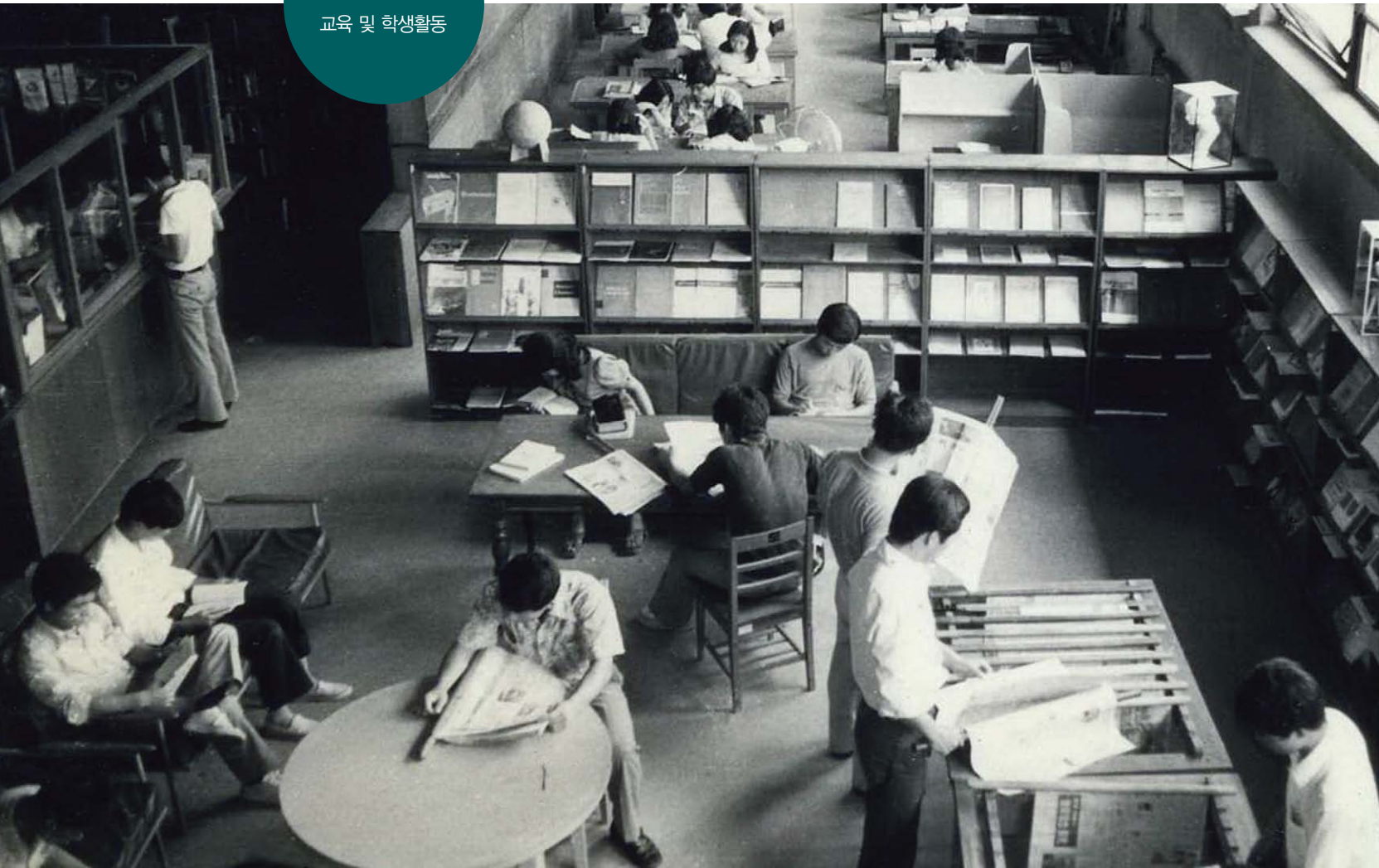
10월 28일 대학 종합운동장에서 600명의 재학생들이 함께 개교 60주년 엠블럼을 형상화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열렸다. 전날 내린 비와 행사 당일 아침부터 부는 쌀쌀한 바람에 이벤트에 대한 염려가 컸지만 이벤트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약속 시간인 오후 1시를 앞두고 학생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10명씩 조를 나누고 운동장에 미리 표시해둔 위치로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작업이 20여분 가량 진행되었다. 600명의 한남인으로 가득 찬 운동장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몸으로 완성시킨 엠블럼의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한남의 어제와 오늘

History of Hannam University

01. 교육 및 학생활동



과거 인돈기념관 1층 대학도서관의 풍경. 신문철을 보는 학생들이 많다. 인돈기념관은 현재 대학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에는 교무연구처가 위치해 있다.



한남대학교는 1956년 개교 당시부터 외국인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화된 대학이었다. 이후 한남대 하면 '영어가 강한 대학'이라는 말이 따라붙었고, 이런 전통은 현재 까지 이어져 글로벌 대학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세월이 흘러 봉사의 무대가 농촌지역에서 아프리카 등 지구촌 전역으로 확대되었을 뿐 예전이나 지금이나 봉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과거 체육대회에서 빠지지 않았던 모래판의 씨름 장면. 현재 한남대는 축구, 레슬링, 탁구 등 스포츠 명문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한남의 젊음은 힘차게 생동한다.



인돈기념관

한남대학교 최초의 건물인 인돈기념관(대학본관)의 기와지붕은 오래전 3층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2010년 창학정신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고증을 거쳐 원래의 기와지붕을 복원하였다.



02.
공간과 건축의 변천



오정못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샘이 있었다. 대학 설립 이전부터 오정골의 젓줄이었던 이 샘은 캠퍼스 확장과 함께 오정못으로 조성되었다.



종합운동장

개교 초창기의 운동장은 현재 사범대학 앞 잔디광장이 되었다. 대신 새롭게 조성된 종합운동장은 전국대학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국제경기의 결승전까지 개최할 수 있는 2스타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구장이다.



정문

과거의 정문은 인돈기념관(본관)과 불과 멀지 않은 위치였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가 확장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정문이 옮겨졌고, 정문 4개 기둥에 음각으로 새겨진 십자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임을 드러내고 있다.



Dynamic 2015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이 도약하다

2015년 한남대는 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갖춘 윤리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롭게 도약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대전·세종 지역 대학 중 가장 높은 우수(B)등급 획득,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대전·세종 거점 학교' 선정, 언론사 디트뉴스 24에서 실시한 대전·충청사립대학 브랜드 인지도 조사 1위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한남대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전·충청 1등을 넘어 아시아의 기독교 명문사학을 목표로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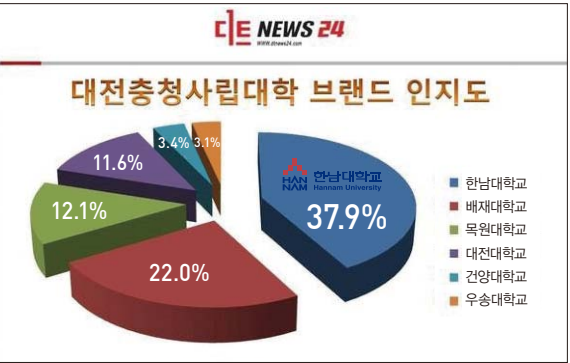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우수(B)등급 획득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의지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한남대가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대전·세종지역 대학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B)등급을 받았다. 한남대학교가 다시 한 번 지역의 최상위권 대학임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포함한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지표를 평가하고 대학이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점에 따라 대학들을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95점 이상이 최우수(A)등급, 90점 이상이 우수(B)등급을 받았다. 그 아래로 C, D, E 등급이 있다. 이중 D, E 등급의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한남대는 '우수' 등급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지원 자격을 얻었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대전·세종 거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선정

한남대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최근 전국 329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22개 대학을 선정했고, 대전에서는 한남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한남대는 5년 6개월간 총 27억 5,000만원(연 5억원)을 지원 받아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개설하고, 정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대전시), 대학 3자가 공동으로 다양한 청년 취·창업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한남대는 앞으로 저학년 때부터 개인별 적성과 전공을 고려한 진로지도도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의 미스 매치(불일치) 현상을 극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센터에 쉽게 접근해 다양한 정부지원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취·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전·충청사립대학 브랜드 인지도 조사 1위

한남대는 디트뉴스24에서 실시한 대전·충청사립대학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디트뉴스24는 대전·충청 최대 인터넷신문으로 정치인, 관공서 관계자 등 폭넓은 독자를 갖고 있는 매체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메일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결과는 한남대가 명실상부 대전·충청 1등 사립대학이라는 위치를 다시 한 번 대중에게 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남대는 대전일보가 2010년 실시한 충청도민여론조사에서도 대전·충청지역 사립대학 중 평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남대에는 보물섬이 있다

한남대의 숨은 보물찾기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한남대에 숨어 있는 보물을 소개하려 한다. 한남대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3가지 숨은 보물이 있다. 학교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선교사촌과 돌레길 그리고 박물관이 그 주인공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선교사촌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 캠퍼스에 있는 선교사촌은 종교적, 건축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52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숲에 서양건축과 동양건축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1950년대 대전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거주하기 위해 1955~58년에 건축한 선교사 사택들이 군락을 이뤘던 마을을 '오정골 선교사촌'으로 불렀다. 당시 오정골에는 1만 9000평에 달하는 선교사촌이 조성돼 있었다.

본래 침례교 선교사들이 살던 주거지역과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교육사업을 하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는 오래 전에 침례교신학대학의 소유로 넘어가고 그 후 신학대학이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건설회사에 매각돼 건물과 수령 40년이 넘던 고목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지금은 6000여 평에 달하는 선교사 주거지만 남아있다.

현재에는 1955년에 지어진 '인돈 학술원'을 주축으로 7개 동의 건물이 하나의 마을처럼 구성돼 있다. 입구 쪽으로 순수 한옥으로 지어진 관리동 1채와 동·서양 절충식으로 되어 있는 3개 동의 건물 및 양옥 3채가 ㄷ자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옥은 서양 건축양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근대 건축양식을 띠고 있다. 특히 '인돈 학술원'은 1950년대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 한남대 초대학장인 린튼(William Alderman Linton·한국명 인돈)의 부인이 직접 설계하고 한국인 목수가 시공한 것으로 건축사적으로 소중한 자료로 주목받아왔다. 붉은 벽돌에 한식 지붕을 올린 점이나 진입로가 현관으로 모인 점 등 서양식 건축에 한국 건축양식을 도입했다.

한남대의
3가지 보물

한남삼보 (三寶)



한남대는 선교사들이 떠난 후인 1994년 사택 일부에 인돈을 기념하는 인돈학술원을 개원해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건물내에는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도구와 각종 서적, 편지, 그림, 도자기 등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료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당시 최초(1955년)로 지어졌던 북측의 3개 동이 2001년 6월 대전시로부터 문화재(문화재자료 제44호)로 지정되었으며 건축 문화의 해인 1999년에는 '좋은 건축물 40선'에 인돈학술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인돈학술원 주변은 40~50년생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솔부엉이, 새매, 소쩍새 등 52종의 조류가 살고 있을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도심 속의 '소생물권'(Biotope) 지역이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남대는 '오정골 선교사촌' 일대에 오동나무 500여 그루를 심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으로 영화 촬영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병헌, 수애 주연의 '그 해 여름(2006)'을 비롯해 설경구, 김남길, 설현 주연의 '살인자의 기억법'이 올해 10월, 그리고 박해일, 손예진 주연의 '덕혜옹주'가 올해 11월 각각 촬영을 마쳤다.

Special Edition

-

한남대에는
보물섬이 있다

16

둘레길

한남대 둘레길은 한남대학교 인근 2개구(대덕구, 동구), 5개동(오정동, 중리동, 송촌동, 용전동, 홍도동)의 주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1.8km의 도보길이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둘레길은 걷기운동과 산책을 나온 주민들로 활기가 넘친다.

매일 주민들과 학생들이 둘레길을 찾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챙기고, 심을 얻기도 한다. 대학 교수와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식사 후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모자란 운동을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다.

한남대를 감싸고 있는 둘레길은 옛길, 고갯길, 숲길, 마을길, 학교 내 선교사촌 등을 환(環)형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소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오래전부터 '청림(靑林)'으로 불려왔다.

둘레길은 둘레를 잇는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잇고 보듬는 길이기도 하다.

한남대 둘레길의 시작은 교문 좌측 운동장 옆 산길에서 시작된다. 이곳을 출발해 창업지원단, 공과대학, 성지관을 거쳐 탈메이지 기념관 뒤쪽 산길까지 이어지는 1코스와 문과대학 오솔길에서 출발해 선교사촌까지 이어지는 2코스가 있다.

가벼운 땀을 내며 1코스 능선을 따라 걷다보면 대전지역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맑은 날에는 한밭대교 너머 서구 둔산동과 유성지역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2코스인 문과대 오솔길을 출발해 걷다보면 50년대 말 한남대 초창기 교육선교사들이 살았던 선교사촌을 만난다. 같은 기와를 올린 한옥들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를 지닌 선교사촌은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소중한 근대건축물로 대전시 지정 문화재이다.

학교 측은 걷는 길을 통해 느림(slow)의 문화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둘레길에 이정표 설치, 조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Museum

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중앙박물관은 1982년 6월 개관한 이래 토도류, 금속류, 옥석류, 골각류, 목죽초칠류, 서화탁본류, 피모지질류, 모조품 등 7,2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중요유물을 선별하여 종합전시실, 백제토기요지실, 전통생활실, 문헌실, 기독교선교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 고고, 민속, 예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 그리고 일반대중의 문화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 기독교대학의 한 기관으로서 기독교 전래과정 및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충청지역 전래의 고고·민속유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전시하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연구 발표하고 동시에 동학들에게 널리 공람하게 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전 용호동 구석기유적은 대전의 역사가 시작된 10만 년 전 유적으로 평가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1987년부터 1991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진천 상룡리·산수리 토기가마터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토기제작기술 및 생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00년 발굴조사한 옥천 대천리 신석기시대 유적은 우리나라의 농경발전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남대 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예사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등록되어, 중앙박물관을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국립기관 학예사, 지방직 학예사,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은 자연을 이루는 광물, 화석,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에 관한 표본을 우선 수집하고 보존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 교육함으로써 자연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83년 한남대 생물학과의 표본실을 모체로 하여 중부 이남 최초로 설립되었다. 현재 300여 평의 규모로 20만여 점의 표본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해양무척추동물, 패류, 곤충, 화석 및 광물 등 다양한 분류군별 전시가 이루어져 있다.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표본연구실, 전시실(상설, 기획, 디오라마), 수장고(척추동물, 무척추동물)를 갖추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생물표본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설 전시실은 식물, 곤충,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지질, 화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주제에 맞춰 표본 전시와 설명,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닷가의 생태 환경을 재현한 소규모 디오라마 전시실이 있다. 자연사박물관 역시 학예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이며 국제적으로는 세계식물표본관총람(Herbarium Index)과, 국제생물다양성표본관(Biodiversity Collections Index)에 등재되어 있는 1종 전문박물관이다.



17

히말라야 니레카봉(6,159m)을 세계 최초 등정한 여성 산악인

이 상 은 동문

| 도시부동산학과 90학번 |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을 사랑하고
산에서 얻은 배움과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좋은
산악인 이상은입니다. 한남대

지역개발학과(현 도시부동산학과) 90학번으로 여러분과는 같은 동문입니
다. 지난 2003년 제1회 아시아 여성산악인 합동등반을 통해 히말라야 니
레카봉을 세계 최초 등정하며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미 최고봉인 오리사바,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터키 최고
봉인 아라라트 등을 등정하고 최근에는 존무어 트레일, 안데스 트레일
등을 종주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산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좋은 기억
들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책의 저자로, 강연회의 강연자로, 때론 라디오
진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산악인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제가 산악인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남편
이죠. 학창시절에는 같은 과
친한 선후배 사이로 대학시절

종종 산행을 다녔었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지내던 중 지
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당시 국가에서 후원하는 에베레스
트 등정반의 상비군에 속해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과정을 쫓 지켜보던 저
역시 평소 산을 좋아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전 등산학교에 들어가
전문지식을 쌓은 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시작으로 2003년 히
말라야 니레카봉을 오르며 산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고봉들을 오르고, 수백
킬로를 걷는 트레일 종주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수천 미터의 고봉을 오르고
수백 킬로를 걷는 일은 육체
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
다. 산을 오르고 척박한 길을

걷다 보면, 일주일 이상 씻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
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산이 주는 특유의 감흥이 있고 거대한 자
연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때의 감동과 아쉬움이 저를 계
속 산에 오르고 수십 킬로의 트레일 종주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Profile



경력 히말라야 니레카봉 세계최초 등정, 중미 최고봉 오리사바 등정,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 터키 최고봉 아라라트 한국인 최초 등정, 오세
아니아 최고봉 코지어스코 등정, 북미-존무어 트레일, 애플래치아 트레일,
남미-안데스 트레일, 파타고니아 트레일, KBS 영상앨범, '산' 진행

저서 <대한민국 트레킹 바이블>, <세상의 끝, 남미 파타고니아>

작년에는 '대한민국 트레킹 바이블' 과
'세상의 끝, 남미 파타고니아' 를
출간하며 작가로도 영역을 확대하셨는데요,

세 계 적 인
고 봉 을 등
정 하 거 나
유 명 한 트

레일을 종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촬영팀과 함께 외국에 나갈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
에는 너무나 아쉬워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주변 지인들, 나이가 보다 많은 사
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산을 다니며 제 인생은 더
욱 풍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오롯이 혼자만 느꼈지만,
지금은 그 즐거움을 글로, 사진으로, 강연장에서,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마
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로 사진을 찍게 되면서 얻은 즐거움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을 찍을 줄 알기에 미리 가볼 곳에 대해 마음속에 그림
을 그리며 상상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상상했던 사진들
을 찍으며 매 순간을 즐깁니다. 그렇게 여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다음에는
사진을 정리하며 그곳에서 느꼈던 감흥의 여운을 더욱 진하게 느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장 가까운 계획은 내년 1월
KBS 영상앨범 산 촬영팀과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에서의

트레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저에게 기회를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회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앞서
불편함을 격정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주저합니다. 변화, 즉 새로운 도
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불편함이란 생각하기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
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년 개교6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교 60주년을 축하드리
니다. 동문으로서 학교가 잘되
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장님 이하 교직

원 선생님들 모두가 본연의 자리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
록 투자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에 대한 저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큰 꿈을 품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후배
님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계4대 사막마라톤 그랜드슬래머’에서 글로벌 NGO설립에 도전하는

최 규 영 동문

| 기독교학과 03학번 |



Prologue

11월 가을의 어느 날. 오랜만에 최규영 동문을 만났다. 실로 2년 만인 것 같다. 졸업 후 통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인터뷰를 위해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주어 정말 고마웠다. 최규영 동문에게는 또래의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마음씨 착한 총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잠재된 모습은 커다란 바위 같다.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어나갈 최규영 동문을 응원한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한남대
홍보모델이었던 기독교학과
03학번 최규영입니다. 2012년
에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4대

사막에서 열리는 마라톤경기에 참가하여 1년 안에 모든 코스를 완주하며 ‘한국인 최초 세계4대 사막마라톤 그랜드슬래머’가 되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중국 고비 사막, 이집트 사하라 사막, 남극이 그 무대였습니다. 그 시절 대학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홍보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특전사 시절 다양한 훈련에 참가했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남대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첫 번째 학생이기도 합니다.

재학시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동력이라면 그 첫 번째는
호기심이고 두 번째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생존본능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상한 호
기심이 있습니다. 가끔 엉뚱한

일에 가슴이 뛰던다가 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사막마라톤을 결정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이 크게 꼬여버리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1년쯤 고민만 했으니 포기했을 법도 하지만,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점점 그 대상의 매력에 빠져 들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뜻이 확실해졌고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젠 이런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생존본능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20살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 35종의 알바 경험이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서도 꼭 살아남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근황이 궁금한데요,
졸업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첫 직장은 총
각네 야채가게라는 이름으
로 많이 알려져 있는 농수산
물 프랜차이즈 기업이었습니다. 요즘 사무직 일을 하려면 컴퓨터 자격증 하나쯤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전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고 회사의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었습니다. 장사가 해보고 싶어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회사인 총각네 야채가게에서 또 다른 배움을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사 밀천을 마련하겠다**고 호주 다윈에 있는 악어농장에서 1년 동안 관리자로 일을 했습니다. 돈 모으려다 발목 일을 뻐했지만 정말 평생 볼 악어는 다 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창업관련 교육도 받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하루하루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저희가
살짝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
다면 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페루에
서 말이죠. 사람이 회사를 세
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장사로 가게를 만
들고 다시 회사로 일구는 것입니다. 최규영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 뚫고 나
가야죠. 그래서 장사를 할 생각이고 제가 생각한 아이템이 통할 나라로 페
루를 정했습니다. **회사가 잘 운영된다면 최종적으로는 NGO를 설립하여 좀
더 공정한 나눔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격려보단 여행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
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살다가
방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지
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라는 생각의 벽에 가로 막혔을 때 여행채비를
하고 긴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히 정의하면 외국에서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자발적 백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만 했습니다. 기타치고 책보고 축구
하고, 온전히 나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다 보니 어
느덧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잘하는
지를 말이죠. 그러곤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혹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여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2달의 시간과 비행기 표 구입비
포함 100만원의 경비 그리고 배낭을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떠나 보세요.**

끝으로 내년에 개교 60주년을
맞는 모교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교 60주년을 축하드리
니다. 항상 지금까지 도전적이
고 열정적인 대학으로 남아주
세요. 제가 한남대를 부끄러
워하지 않듯 저도 부끄럽지 않은 한남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개교
100주년에 꼭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nformation

기록관리학과 의 장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즉 아키비스트(Archivist)는 사실의 수호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록의 수집과 평가, 보존 및 관리, 정보 공개 등의 실무를 전담함으로써, 그 소속 기관(단체)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기록관리학과 연계전공 학생들이 서울기록원 견학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록관리학과

2015년 중앙행정기관 3명 포함 총 7명의 기록연구사 배출

기록관리학과가 올해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기록연구사 시험에 3명,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사 시험에 2명, 국책연구기관에 2명 등 총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중앙행정기관 기록연구사 시험 합격의 주인공은 한남대 대학원 기록관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변주연, 고석호 씨와 한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기록관리학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김관태 씨다. 이들은 공무원 6급 상당의 기록연구직으로 채용되며, 변주연씨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고석호씨는 국립공주교대에서, 김관태씨는 국립한경대에 발령을 받았다. 또 한남대 대학원 기록관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희덕씨와 김혜인씨는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직 시험에 합격해 전북교육청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이용주씨와 정지훈씨는 국책연구기관에 합격해 이용주씨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지훈씨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다.

또 2013년에는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기록연구사 시험에 3명,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사 시험에 2명, 국책연구기관에 1명 등 총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현재 기록관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수료생 제외) 졸업생들 가운데 기록연구직 취업률은 약 80%에 달한다.

한남대는 지난 2000년부터 일반대학원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지방에서 최초로 1년 과정의 기록관리학교육원 을 행정안전부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기록관리학교육원(1년 과정) 수료자는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합격자는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자들과 동등하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사 등 공공기관 기록연구사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건축학과 학생들이 학과작품전시회 출품작을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건축학과

대전지역 사립대 최초 '건축학교육 인증' 획득 N대학생 건축대전 동상 수상

건축학과(5년제)가 대전지역 사립대학 중 최초로 '건축학교육 인증' 을 획득했다. 건축학과는 올해 7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주관하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실사를 받았고, 그 결과 최고 등급인 '5년 인증' (2015.7.31.~2020.7.30)을 획득했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3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등이 있으며, 5년 인증은 최고 등급이다.

인증실사의 주요 심사요소는 ▲학위 및 교육과정 ▲학생정보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물리적·정보·재정자원, 연구활동 ▲학생수행평가기준 등으로 건축학과는 이번 인증을 위해 지난 8년간 준비했다. 이 인증제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해당 대학 건축학과에서 높은 수준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공인하는 것으로 건축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만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1984년 설립된 한남대 건축학과는 2003년부터 5년제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석과 창작의 통합, 기술과 디자인의 통합, 스케일의 통합 등을 통해 '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건축가' 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최 제19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에는 전국 63개 대학 172개팀이 응모했으며, 한남대 건축학과와 윤호성, 송인, 최우혁 팀은 '공간사이, 사람사이' 라는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윤호성, 송인, 최우혁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해외 건축기행(11월 7일~15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지원과, LH 입사 지원시 가산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Information

건축학과 의 장점

건축학과에서는 5년의 재학기간 동안 각자의 설계스튜디오에서 생활한다. 매 학기 설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학기말이 되면 각자 창작한 건축물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이론을 공부하는 동시에 실습을 하는 커리큘럼은 졸업 후 바로 실무가 가능한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건축학과는 학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해 외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진로

설계·감리를 하는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졸업 후 일정한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뜻을 펼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시험을 통해 건축에 대한 행정을 할 수 있고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학계로 진출할 수도 있어서 진로의 폭은 매우 넓다.



10월에 열린 '2015년 제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4학년 재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생명·나노과학대학

간호학과

Information

간호학과 의 장점

병원과 같은 환경을 가진 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해부학 관련 기구를 비롯해 각종 병원 기구들이 최신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학병원 및 외국 간호 전문가를 초청하여 취업과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교수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습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선배배간의 벽을 허물고자 직속제도를 만들어 선배배간의 정보 및 진로를 도와주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소수의 남학생들 간에는 마이너스라는 동아리가 있어 멘토 및 끈끈한 우애를 다지고 있다.

향후 진로

간호학과 졸업 후 병원 간호사, 전문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교수, 보건교사, 연구원, 보건직 공무원, 개업간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원 국시 합격 및 100% 취업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간호학과가 1회 졸업생에 이어 2015년 2회 졸업생도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00% 취업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회 졸업생 35명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병원에 18명, 충남대병원 등 충청지역에 12명, 기타지역 4명, 장교임관 1명 등 100% 취업하였다.

특히 '2014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이 주관해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역량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최근 한국간호과학회 주최로 열린 제10차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는 간호학과 3학년 이예빈, 김수민, 유화진, 황상연, 홍수민, 정다솜 학생(지도교수 박성원, 유승연 교수)이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호스피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로 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를 수상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15개국에서 간호학자와 간호교육자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학회에서는 학부생 부문에서 24개의 연구 중 국내 대학 중에서는 한남대 1팀, 연세대 1팀, 고려대 1팀 등 총 3팀만이 수상했다.

간호학과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대덕밸리캠퍼스의 생명·나노과학대학 소속이다. 중부권에 서 비교적 후발주자에 속하는 간호학과는 미국 기독교 재단에 의해 설립된 강점을 살려 기독교적 봉사정신과 생명과학에 기초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미국 위스콘신대학, 호주 찰스스터트대학, 필리핀 실리만대학 등 10여 개 자매대학과 국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Information

일어일문학과 의 장점

학생에 대한 학과의 지원이 커, 학과 자체 장학금으로 학과교수장학금, 김희진학우장학금, 윤영로교수 제자사랑장학금, 명재은장학금, 학과장학금 등 매년 15~20명 정도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학생 자치활동도 활발하여서 매년 개최되는 학술제에서는 일본어 원어연극, 일본전통춤, 오와라이(공트), 시낭송, 구연동화 등 다채로운 활동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진로

졸업 후 학생들 진로의 가장 큰 강점은 전공을 살린 전문성을 확보한 직종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현지취업, 국내 일본계기업, 무역회사, 호텔 및 관광업계, 공항 지상직, 항공사 승무원, 일반 사무직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턴 등 재학생들 대외활동 두드러져

내년 4월 일본 현지 기업인 후루타니산업 주식회사에 취업이 확정된 선설아 학생(11학번)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해외 영사관에서의 인턴 근무는 외교부 주최의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설아 학생은 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행사에서 통역업무를 맡았으며, 공연이나 사진전, 한국의 국경일 행사 등의 일부 업무도 담당했다.

또 박민지 학생(12학번)은 올해 9월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연계에 의한 방일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돼 6주간 간사이국제센터로 연수를 다녀왔으며, 이승주 학생(12학번)은 올해 10월 외교부 주관의 방일 대학생 대표단으로 선발돼 10일간 도쿄, 아와지시, 고베, 오사카 등을 방문해 다양한 일본문화를 체험했다. 대표단 선발은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대학에서 전공을 가리지 않고 28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뿐만 아니라 송서연 학생(13학번)도 올해 9월 일본의 장학재단인 교리쯔재단에서 주최하는 일본체험 희망콘테스트 최종 5인에 선발돼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올 겨울 일본을 탐방 할 계획이다. 일본체험희망콘테스트는 매년 세계 각국의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탐방 보고서를 받고 지원자 가운데 참가자를 선발한다. 송서연 학생을 제외한 한국인 합격자 4명은 모두 4학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송서연 학생의 최종합격은 더욱 눈에 띈다.

올해로 학과 창설 40주년을 맞이하는 일어일문학과는 긴 역사만큼이나 알찬내용으로 일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일본전문가를 양성해내고 있다. 일어일문학과는 실용어학, 문학, 역사, 문화 등 종합적 일본관련 교육과정과 비즈니스·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서 직접 활용가능 한 능력배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 자매대학과의 교류에 주력하여 12개의 일본 각지의 자매대학과 교환학생 제도를 활용하여 연 20명 내외의 학생에게 유학을 통하여 넓은 시야와 현지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또한, 관세이학원대학 등 4개의 자매대학에 단기어학연수로 연 30명 내외의 학생에게 일본어 능력 향상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선설아, 박민지 학생, 정향재 일어일문학과장, 이승주, 송서연 학생



일어일문학과 학술제에서 재학생들이 일본전통춤(좌) 일본어원어연극(우)을 공연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계절학기 수업을 듣다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3학년 이동규

한남대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에 재학 중인 나는 학과에서 운영중인 글로벌비즈니스
창의인력양성사업단의 케임브리지 계절학기 프로그램 통해 영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케임브리지대학은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대학 중 하나이며, 공립 연구
중심 대학교로 800년의 오랜 역사와 큰 영향력으로 세계의 일류 대학 중 하나가 되었다.



오랜 전통을 지녔지만 현대화되어 있는 나라, 축구 팬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영국. 7월 18일 영국 런던 인근에 위치한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까지도 영국에 도착한 것이 실감나지 않았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나를 맞아준 상쾌한 공기와 영국 억양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공항의 모습에서 영국에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났다.

히드로공항에서 케임브리지대학까지는 버스로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넓은 초원과 농장들을 보았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케임브리지대학 호머튼칼리지
(Homerton College)였다. 케임브리지대학에 도착하기 전까지 몰랐던
사실 중 하나가 케임브리지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이 무려 31개나 된다
는 것이었다. 한남대처럼 한남대가 있고 경상대나 사범대로 나뉘는 것
이 아니라 31개의 서로 다른 독립 대학들이다. 각 칼리지마다 전통과
문양이 다르며, 서로 다른 칼리지 소속 학생들은 거의 마주칠 일도 없
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케임브리지는 하나의 도시라는 말이 이해
가 되었고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다.

호머튼칼리지 입구에 들어서자 영화에서만 보았던 푸른 잔디와 고
풍스러운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체류기간 동안 머물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처음 간 곳은 각 칼리지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학교 펍
(Pub)이었다. 간단한 요리와 다양한 마실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한국
의 대학교는 다른 문화였다. 교내에서 술을 판다는 것과 심지어 학생
증이 있으면 할인까지 된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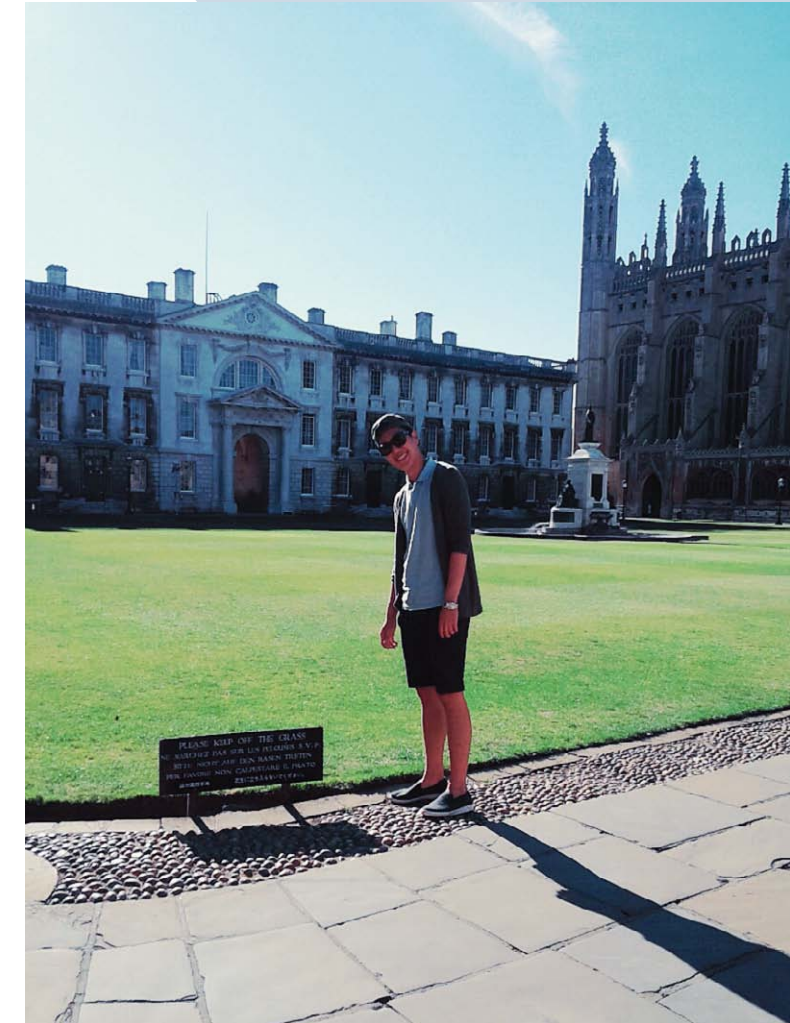
수업은 이튿날부터 시작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중 하나는, 역사적인
그림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분석하는 수업이었다. 더욱이 그림들을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츠윌리엄(Fitzwilliam) 박물관에서 직접
원작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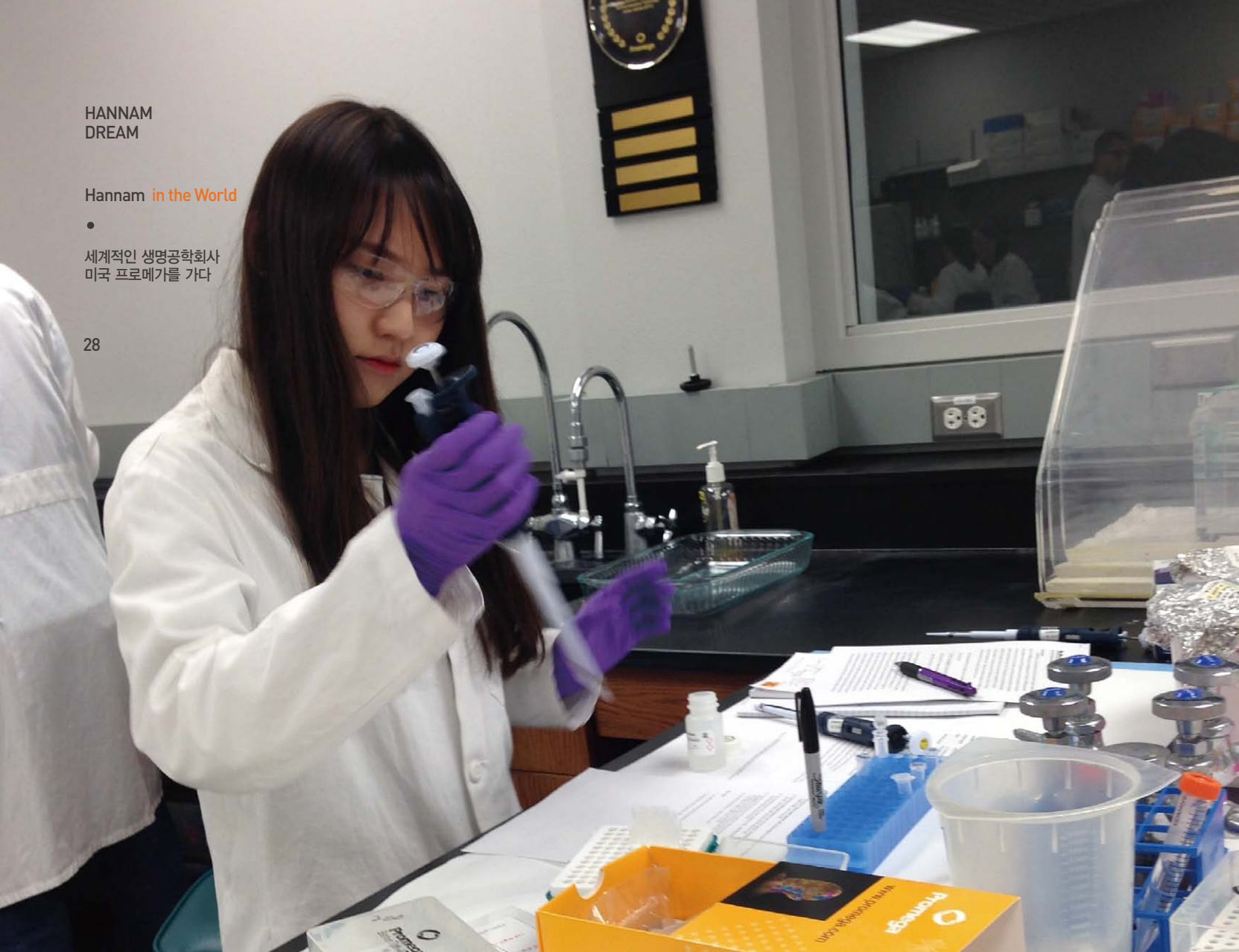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수업은, 본인의 특성을 찾는 수업이었다. 수업의
시작은 간단한 실험으로 시작하였는데, 마시멜로우 챌린지라고 불리는
실험이다. 스파게티면, 테이프, 끈, 마시멜로우를 사용하는 실험으로
자신의 특징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팀원들의 특징까지 살펴볼 수
있어 더욱 신기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케임브리지대학 교
수님들을 실제로 뵈고 그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이다.

영국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 영국 음식은 사람들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하지만, 내 입맛이 최악인건가, 모든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다.
English Breakfast를 비롯해 Fish&Chips, Meat Pie 등 너무나 그리
워했던 음식들이었다. 오랜 시간 호주에서 유학을 하며 즐겨왔던 음식
들이라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만큼은 너무나 행
복하고 추억이 있는 음식들이었다. 음식을 나누며 서로 대화하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자신
도 영국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케임브리지대학의 많은 건물들은 몇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건
물들의 역사는 펀팅(Punting)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펀팅은 펀
트라는 배를 타고 케임브리지대학의 학교들을 연결해주는 강을 따라가
면서 안내인이 직접 학교들의 특징과 설립 시기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
는 프로그램이다.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이렇듯 유익한 활동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하고 올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세계적 생명공학회사 미국 프로메가(Promega)를 가다

생명시스템과학과 4학년 송민경

한남대 생명·나노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과에 재학 중인 나는 학과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글로벌인재양성Bridge 사업단의 해외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생명공학 회사인 미국 프로메가에 다녀올 수 있었다. 미국 프로메가는 부설 비영리 연구기관인 BPCI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여름 이곳에서 현장직무교육과정(단백질/유전공학 핵심기술강좌)을 이수하고 돌아왔다.

지원 당시 사실은 미국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더 컸었다. 동생이 있는 미국에 처음으로 가볼 수 있는 기회였고 학교 다니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미국에 가볼까 하는 생각에 무작정 지원했었다. 문제는 영어 인터뷰였다. 솔직히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꽤나 컸다.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교수님들 앞에서 인터뷰를 봐야했으니 말이다. 더욱이 그 당시 졸업을 위해 꼭 통과해야만 하는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인터뷰 날이 하필이면 보고서 제출 이틀 전이라 고민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보고서를 뒤로하고 영어 인터뷰를 택했다. 일단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도전조차 해보지 않고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두 명을 선발하는 최종 명단에 들었다. 7월 8일 이른 새벽,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친구와 둘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4시간 정도의 비행 후에 미국의 메디슨 공항에 도착했다. 프로메가의 Karin박사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박사님께서 천천히 말씀해주신 덕분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고 짧은 대화가 가능해졌다.

드디어 2주간의 프로메가와 부설 비영리 연구기관인 BPCI에서의 일정이 시작됐다. 도착 후 처음 며칠은 연구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실험들을 하는지 견학위주의 일정을 소화했다. 기회만 된다면 이곳에 꼭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시설을 비롯해 모든 것이 최상이었다.

견학 후에는 일정 동안 함께 공부할 사람들을 소개 받고 프로메가의 빌 린튼 회장님도 만났다. 그 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스콘신대학의 대학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갔기 때문인지 그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교육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강의와 실험이 반복됐다. 모든 일정이 영어로 진행되어 가끔씩 집중력에 한계가 올 때도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실험 내용보다도 실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였다. 강의는 강연자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진행됐는데, 강연자가 설명하는 내용 중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한국에서의 강의 모습과 크게 달랐다. 각 실험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지만,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알고 싶었던 것들을 다 묻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쉽다.

길고도 짧은 모든 일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조차 다사다난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영어면접을 포기했었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값진 경험들이기에 그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스스로가 지금도 대견하다.

올 겨울방학에는 1명이 늘어난 3명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알고 있다. 학교에서 참가자들에게 1인당 항공비, 체류비 등 총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만큼 후배들이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길 바란다.

송민경(좌) 학생이 빌 린튼 미국 프로메가 회장과 함께하고 있다. 빌 린튼 회장은 한남대 설립위원장과 초대총장을 역임한 윌리엄 린튼의 손자이다.



모집인원

9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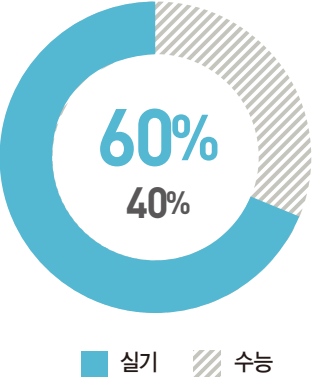
모집인원

전형방법

일반전형_수능위주



일반전형_실기위주



원서접수

2015. 12.24 |목| 09:00
- 12.30 |수| 19:00

서류제출마감

2015. 12.31 |목| 21:00

등록기간

2016. 1.29 |금| 09:00
- 2.2 |화| 17:00

합격자 발표

2016. 1.15 |금| 17:00 이후

한눈으로
보는
정시모집

대전·충청
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합격발표

성적
반영
방법

수능
100%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교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면접
100%

특성화고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인문
(의류포함)



국어, 수학, 영어, 탐구(또는 2외국어)
중 백분위 성적이 높은 3과목의
백분위 점수 합

× 2

환산점수
600

자연/간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백분위 성적이 높은 3과목의
백분위 점수 합

× 2

환산점수
600

예·체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또는 2외국어)
중 백분위 성적이 높은 3과목의
백분위 점수 합

× $\frac{4}{3}$

환산점수
400

※가중치 국어B형:10%, 수학B형:15%
※탐구는 성적이 높은 1개 과목만 반영

Hannam News

-

한남뉴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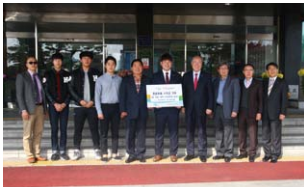
한남대학교 제16대 신임 총장에 이덕훈 교수 선출

한남대학교의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이사장 이락원)은 11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학과 이덕훈(58) 교수를 제16대 한남대학교 총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이 신임 총장은 한남대를 졸업한 동문으로,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2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학술정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조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전통시장학회 회장, 조달청 자체평가위원장, 대전시 경제정책자문단장, 대덕구 정책자문위원장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신임 총장은 한남대를 'GLORY(Global, Leading, Open, Regional, Young)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5C정신(Christianity, Change, Challenge, Creativity, Convergency)'을 형성해나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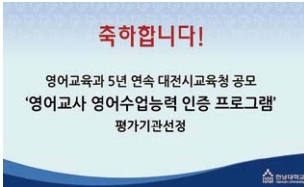
총학생회, 대학 축제 수익금 대덕구청에 전달



한남대 총학생회가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기탁했다. 한남대 총학생

회(회장 이지훈)는 11월 6일 대덕구청을 찾아 축제 수익금 150만 원으로 구입한 쌀과 라면, 내복 등을 전달했다. 한남대 총학생회는 10월 열린 대학 축제에서 행사부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열린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밤 축제가 끝난 뒤 공연장 일대를 청소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5년 연속 '영어교사 영어수업능력 인증 프로그램' 평가기관 선정



한남대 영어교육과가 5년 연속 대전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어교사 영어수업능력 인증 프로그램' 평가기관에 선정됐다. '영어교사 영어수업능력 인증 프로그램'은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능력 및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제도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교사의 확대 및 학교 실용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영어교육과는 2011년도부터 지난 4년 동안 매년 80여명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능력'을 인증평가 해오며 대전의 대표적인 영어교육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증평가에는 원어민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유능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며, 이 평가에 참여한 대전시 초·중등 영어교사들은 20분간 영어수업을 실연하고, 영어면접과 영어강의 실연을 통해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제16회 수어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소모임인 '너나들이'가 10월 31일 대전광역시 후원하고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부가 주최한 제16회 수어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 13명으로 구성된 너나들이 팀은 약 7분 분량의 수화연극을 공연해 호평을 받았다. 너나들이 팀은 1999년 창립되어 학과의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과 수화봉사를 병행하며 17년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2년과 2013년에도 수어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학과, 역사교육과 전국역사학대회 '답사 동영상 경연대회' 최우수상, 장려상



한남대 사학과와 역사교육과는 10월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 58회 전국역사학대회 '답사 동영상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국 70여 역사 관련학과에서 매 학기 현장 학습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 기획 제작한 답사 동영상은 그 결과물로서 교육과정의 충실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학과 신동원, 홍준영, 조희훈 학생이 출품한 '사학과의 7박 8일 중국문화유산 답사기'는 최우수상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또 역사교육과 김형진, 한승일 학생이 출품한 '마을로 찾아가는 현지조사'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1박 2일간 충남 논

산의 마을들을 직접 방문해 현지조사를 한 내용으로 한남대 역사교육과만의 답사 방식과 특성을 알리고,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가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한 제58회 전국역사학대회는 국내 역사학계의 최대 학술행사로 최우수상(역사학대회장상,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상) 2팀, 장려상 1팀, 참가상 7팀이 선정되었다.

제11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 개최



한남대 한국어학당은 10월 7일 사범대학 앞 잔디밭과 학생회관 송계홀에서 제569돌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그동안 익힌 한국어 글쓰기와 말하기 솜씨를 겨루는 '제11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총 27개국 348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글짓기 대회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주제로 200자 원고지 10매 인팜의 분량으로 글을 쓰게 되며, 휴대폰 인터넷 검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말하기 대회는 1인 말하기 또는 2~3명의 역할극 형식으로 5분간 한국어실력을 겨룬다. 입상자에게는 세종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부문별로 각각 훈민정음상(대전시장상), 집현전상(한남대학교 총장상), 한글상(대전문화방송 사장상), 7가상(한국어학당 원장상) 등이 수여됐다. 대상인 세종상은 '궁합의 미, 조화의 미, 나눔의 미'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 재학 중인 스다 미키호(일본) 학생이 수상했다.

한남대, '2015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 선정



한남대가 중소기업청의 '2015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한남대 산학협력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총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간 사업을 수행한다.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사업 수행 등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3D 프린터실을 구축하고, 장비보급 및 교육 등을 통해 제조분야 창업 활성화 촉진과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인하 산학협력단장은 "3D 프린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의 제품화 과정 등을 통해 창업 및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창업 동아리 학생들에게는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모델 보완,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33

Hannam News

- 한남뉴스

국문학과 강정희교수, 영문학과 홍기영 교수
은퇴하며 제자들 위한 장학금 기탁



8월 31일 국문과 강정희 교수와 영문과 홍기영 교수가 정년 퇴임하며 제자들을 위해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강 교수는 1981년 3월 한남대 국어국문학과에 임용된 후 34년 6개월 동안 봉직해왔으며 최근까지 13년간 한국 어학당 원장을 역임한 한국어학당의 산증인이다. 강 교수는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학교와 제자들에게서 받은 것의 일부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마음을 드리고 싶었다”며 “학교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동안 10년간 적금을 부어서 3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기영 교수도 1981년 3월 한남대 영문학과에 임용된 후 34년 6개월 동안 대학에 봉직해왔으며, 문과대학장, 학생복지처장, 사회문화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홍 교수는 “은퇴를 하며 모교와 학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학과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기업 인턴십으로 경쟁력 쌓는 학생들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 창의인력양성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IT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글로벌IT경영전공 학생

5명은 8월 30일 인도 뱅갈루루로 출국했다. 이들은 뱅갈루루에 위치한 크라이스트대학교 내에 있는 아이오라이트 테크놀로지 PVT의 R&D센터에서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인턴 생활을 한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동안 400시간에 걸쳐 관련 교육을 받았다. 참가자 중 한명인 김중선 씨는 “뱅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도시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IT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며 “해외 IT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은 꿈이 있는 제게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기계공학과, 2015 국제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최우수 디자인부문상 수상



한남대 기계공학과 DYNAMICS팀(팀장 김재영)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영남대에서 진행된 ‘2015 BAJA SAE KOREA’에서 최우수 디자인부문(appearance)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국제 자동차공업회(SAE)에서 인증하고 있는 BAJA(바하) SAE급 세계 6대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중 하나로 유명하다. 대회 첫째 날에는 엄격한 설계제작 규칙(소음, 제동 포함)을 검사하는 정적대회를, 둘째 날에는 가속트랙, 조정드라이빙트랙, 락크롤링(rock crawling), 진흙연못통과 등의 동적성능대회를, 셋째 날에는 3.2km 산악 오프로드트랙을 3시간 동안 주행하는 내구대회(endurance)를 치른다. 3박 4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각 팀은 일반 모터 레이싱에서 처럼 드라이버와 엔지니어링 팀을 포함한 20~40명 정도의 PIT를 운영하게 된다. 또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설계보고서, 원가보고서, 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 시설 및 공작실에서 스스로 자동차를 설계, 제작 및 시험해야만 한다.

중국 서안교통대와 3+2 복수학위제도 진행키로



한남대는 9월 1일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원광루이 서안교통대학교 국제교육대학 부학장과 손유취엔 중국어학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3+2 복수학위제도’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서안교통대는 중국 서부지역 명문대학 중 하나로, 이번 체결을 통해 중국경제통상학과 학생들은 한남대에서 3년, 서안교통대에서 2년 학부과정을 거쳐 양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다.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학생들은 중국의 서안교통대학을 비롯한 5개지역 7대 명문대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한남대는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3+2 복수학위제를 다른 자매 대학으로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① 김건하 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건설시스템공학과 김건하 교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김 교수의 환경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에 따른 것이다.

②③④ 진현웅 교수, 윤연수 교수, 이재승 교수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경영학과 진현웅 교수, 수학교육과 윤연수 교수, 건축공학전공 이재승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6년 판에 등재된다.

⑤ 권성준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건설시스템공학과 권성준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25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2015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나노 실리카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내구성 향상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⑥ 유천성 교수, 한국전산응용수학회 논문상 수상

수학과 유천성 교수가 2015년도 한국전산응용수학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는 SCI를 포함한 국제 저명학술지 우수논문 발표를 비롯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해 많은 논문을 발표해왔다.

⑦ 이영식 교수 기고문, ‘아시아의 중등영어교육’에 실려

영어교육과 이영식 교수가 한국의 영어교육을 대표하여 기고한 ‘한국의 중등영어교육 개혁’이 세계적인 출판사 Routledge에서 출간한 ‘아시아의 중등영어교육’에 실렸다.

⑧ 이진호 교수,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학회 석학회원 선임

신소재공학과 이진호 교수가 조직공학·재생의학 분야의 연구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100여 국에서 2만여 회원이 참여하는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학회(TERMIS) 석학회원(펠로우)으로 선임됐다.

⑨ 전통복식학과 박지원 씨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전통복식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지원 씨가 제40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 씨는 조선의 23대 왕 순조의 넷째 딸 덕온공주가 1837년 남녕위 윤의선과 결혼할 때 대례복으로 입었던 ‘덕온공주원삼(사진)’이란 작품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⑩ 경영학과 김동욱 동문 공인회계사 최종합격

경영학과 이학번인 김동욱 동문이 올해 6월 진행된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했다. 김 씨는 2014년 시행된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도 최종합격한 바 있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깃든 귀한 발전기금은 한남대학교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제학과 교수들, 제자들 위해 장학금 기탁



10월 20일 경제학과(학과장 이상훈) 교수들이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 1천 5백만원을 기탁했다. 경제학과교수 8명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제자들의 연구 및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1년 4월부터 급여 이체 등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과 권리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학교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 기금의 기여정도와 기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내 특정 공간의 명칭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 명단은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공시합니다.
- 출연하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 및 법인 세제혜택을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 발전기금 5백만원 기탁

9월 18일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가 대학본관 총장실을 방문해 대학발전기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김 대표는 2005년부터 매년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체육부 학부모, 대학발전기금 350만원 기탁

9월 15일 한남대 체육부 선수 학부모들이 학교에 35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발전기금 기탁은 이날 오전 교내 체육부 숙소인 '시빌리 기념관' 리모델링 개관식과 함께 열렸다.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 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정태희 (주)삼진정밀 대표는 7월 10일 총장실을 방문해 대학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삼진정밀은 국내 최대 수처리 및 산업용 밸브 생산업체다.

한금태 (주)삼영기계 회장,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7월 10일 한금태 (주)삼영기계 회장이 총장실을 방문해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한금태 회장은 한남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 방문납부**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관 1층에 위치한 대외협력팀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 급여공제**
본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Tel. 042-629-7502~3, 8099)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입금**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한남대학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전화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710401-00-002814 / 예금주 한남대학교]



나눔의 실천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기부로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은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남대학교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대학발전기금 기탁자 2015. 5. 23 ~ 2015. 11. 13

성 명	기탁 및 약정액	성 명	기탁 및 약정액	성 명	기탁 및 약정액
김형태	3,196,000	박성원	250,000	이진호	889,000
본교 교수 및 직원(235명) 개교 60주년 기념 사업기금	23,800,000	박우전	350,000	이희영	250,000
(주)건축사사무소에이블	300,000	박희진	600,000	임원철	248,650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500,000	변상내	198,920	임천석	250,000
(주)신신양행	300,000	변상형	250,000	장수	250,000
(주)아이팝엔지니어링	1,000,000	사희민	500,000	장수덕	889,000
(주)이랜드스포츠	6,250,000	서영성	250,000	정강욱	889,000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00	서영숙	500,000	정명기	5,000,000
(주)휴먼에듀	2,500,000	설성수	2,000,000	정일남	5,000,000
(주)희림종합 건축사무소	500,000	성안하	250,000	정재완	1,500,000
강봉수	250,000	소우영	350,000	정충영	889,000
강신성	889,000	손대락	250,000	정태화(주)삼진정밀	20,000,000
강정희	30,000,000	송태복	2,000,000	정홍진	250,000
강철신	250,000	수원삼성축구단	9,000,000	조남춘	500,000
계룡건설산업(주)	1,000,000	신동민	400,000	조만형	250,000
고성철	600,000	신동아건설(주)	1,000,000	조수현	600,000
권세혁	500,000	신동호	725,000	조재홍	250,000
권은영	10,000	신한동	500,000	진현웅	889,000
김경자	250,000	신화남	3,000,000	차태병	1,000,000
김경태	58,380	심상보	800,000	청종합건축사사무소	300,000
김미중	250,000	심용보	889,000	최성규	500,000
김석수	415,000	심우건	250,000	최영근	1,000,000
김수연	10,000	양원석	889,000	최용관	5,309,360
김승준	250,000	양준모	1,000,000	최의민	350,000
김연철	74,500	영어세계사	900,000	최장우	500,000
김영수	365,000	유소영	400,000	최현묵	1,000,000
김영태	250,000	윤영철	200,000	케임브리지	2,800,000
김원규	200,000	윤천석	250,000	키다리영어	1,167,480
김은혜	416,500	은웅	500,000	학군단(51기)	410,000
김의섭	2,000,000	이강수	350,000	학군단(52기)	2,168,650
김정미	60,000	이계천	250,000	학군단(53기)	2,909,550
김정호	5,000,000	이규식	500,000	한경신	400,000
김주향	1,000,000	이규현	889,000	한금태(주)삼영기계	10,000,000
김진호	250,000	이덕훈	889,000	한기문	500,000
김혜숙	500,000	이만희	350,000	한남대학교 체육부	3,500,000
김홍기	1,250,000	이문균	4,000,000	한남대학교회	5,000,000
남성집	889,000	이상구	350,000	한상민	2,500,000
남수현	25,000	이상훈	2,000,000	허찬영	889,000
남충희	250,000	이용택	250,000	현영석	889,000
노정순	300,000	이인숙	250,000	홍기영	10,000,000
민완기	2,000,000	이장순	250,000	황요성	500,000
박길철	500,000	이재광	350,000	황요성	443,000
박상진	2,000,000	이제현	500,000	황의정	2,500,000
박서호	7,000,000	이종석	8,004,000	황진영	2,000,000
박선희	250,000	이주섭	900,000	황철호	250,000
		이진의	250,000	합계금액	245,021,990



오시는 길

- 대전 IC에서 3.6Km 승용차로 약 10분
- 대전복합터미널에서 2.1Km 승용차로 약 7분
- 대전역에서 3.1Km 승용차로 약 10분

오정동 캠퍼스 안내

- | | |
|----------------------------|---|
| ① 린튼기념관 대학본부 | ②7 상징탑 |
| ② 탈메이지기념관 교양융합대학 | ②8 고루각 |
| ③ 화이트기념관 사범대학 | ②9 오정못 |
| ④ 문과대학 | ③0 김기수 기념관 |
| ⑤ 경상대학 | ③1 국가시험지원센터2 |
| ⑥ 계곡돈기념관 구. 이과대학 | ③2 린튼기념공원 |
| ⑦ 조형예술학부 | ③3 국가시험지원센터 - 유림관 남 |
| ⑧ 학생회관 | ③4 국가시험지원센터1 여 |
| ⑨ 공과대학 | ③5 선교사촌 대전시 지정 문화재 |
| ⑩ 학술정보관 중앙도서관 | ③6 글로벌 하우스 외국인 교수 숙소 |
| ⑪ 법정대학 | ③7 기숙사 소망관 |
| ⑫ 미술교육관 | ③8 게스트하우스 |
| ⑬ 복문 청림길 | ③9 실내체육관 |
| ⑭ 기숙사 자유의 집, 봉사의 집 | ④0 외국어교육원 |
| ⑮ 둘레길 학생회관 - 선교사촌 1.8km 구간 | ④1 테니스장 |
| ⑯ 성지관 | ④2 운동장 잔디구장 |
| ⑰ 시빌리하우스 | ④3 외국어교육원 강의동, 글로벌 카페 |
| ⑱ 창업보육센터 | ④4 강의동 |
| ⑲ 학군단 R.O.T.C | ④5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한국어학당, 국제교류팀 |
| ⑳ UN기념공원 | ④6 기숙사 한국어학당 |
| ㉑ 종합운동장 | ④7 게스트하우스 |
| ㉒ 운동장 야구장 | ④8 기숙사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
| ㉓ 공용주차장 | ④9 국제관 |
| ㉔ 정문 | ⑤0 동문 |
| ㉕ 캠퍼스타운 | ⑤6 56주년 기념관 법정대학, 특수대학원, 입학홍보처, 중앙열람실, 전자열람실, 서의빌 홀 |
| ㉖ 평생교육원, 국제 IT교육센터 | ⑤7 정성균 선교관 |



대덕밸리 캠퍼스 안내

- ① 창조관 행정동
- ② 진리관 생명시스템과학과, 화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 ③ 자유관 식품영양학과, 공용강의실
- ④ 봉사관 학교기업, 공장동, 휴게실, 식당, 매점
- ⑤ HNU Science Park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 ⑥ Inno-Biz Park 창업보육센터, 간호학과
- ⑦ 정문

대전·충청
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대전·충청권 사립대학 평판도 1위(2010 대전일보 조사)